

17/02/26(주) 주일예배 / 제목 :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눅 16:19~26) p.124

(19)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현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현대를 핥더라 (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 아브라함이 이르되 애 너는 살았을 때 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 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어느 교회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 왔습니다. “목사님 ! 질문 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지요, 천국 과 지옥은 실존합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하는 말, “목사님! 그러면 이제부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심각 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초신자의 말처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만 할 수는 없지만 그 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 든 설교가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중요한 설교는 구원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중에서도 더 중요한 설교는 천 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이 지옥과 천국을 알고는 있는데 잘 믿지를 않습니 다. 그래서 저도 간혹 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 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죽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으로 그 결과로 죽음이 왔다 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흠으로 돌아갑 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 누구도 부 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4복음서에서만 무려 18번씩이 나 지옥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지옥이 있다는 말을 하면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아 예 지옥을 말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강단에서 지옥과 천국에 대

한 설교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핵심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구원에 있고 그 구원의 목적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죽음 후에 두 길 중에서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세밀하게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사실을 믿고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 보면서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 본론 /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가?

#### 1.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급 옷을 입고 세상 쾌락을 따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19절). 그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서 날마다 향락과 사치를 즐기느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했을 뿐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조차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먹고 버리는 음식을 얻어먹으며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했습니다. 그는 건강상 태도 매우 나빴습니다. 그는 종기와 고름이 나는 피부병을 앓고 있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 그를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20~21절). 그러나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고난을 견디어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에게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지 나사르가 먼저 죽었습니다. 거지이다 보니 제대로 못 먹고 병들었습니다. 게다가 온몸이 상처 투성이다 보니 그의 죽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부자 역시도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부자 역시도 거지 나사르와 똑같이 죽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오래 살려고 몸에 좋다는 보약이나 녹용 등 각종 보약을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시 90:10~12)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90편 말씀처럼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벌인 유명

한 대토목공사들의 규모를 보면 만리장성은 150만 명을 동원해서 만들어졌고, 아방궁은 70만 명, 진시황릉도 70만 명을 동원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귀영화와 권세를 영원토록 누리고 싶어서 불로장생을 위한 영약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신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진시황제의 명을 받은 일행이 불로초를 찾아서 제주도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오매불망 불로초를 기다리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시작한 지 10년도 안 되어 49세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처럼 온갖 좋은 음식과 약초를 다 구해서 먹었을 진시황도 자신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손에 쥐어도 결국 죽은 뒤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눅 12: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가? 1.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

## 2. 죽음 이후에 예비된 세계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문제는 죽음 이후가 문제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찌되었나요? (22절) “이에 그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죽었는데 천사들이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의 장례의 모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장례를 치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생깁니다. 또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해보겠다며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지점은 없습니다. 누구나 죽은 뒤에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을 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9: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진지한 인식을 가지면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거나 대책이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야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돈도 건강도 돌봐줄 사람도 없었던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죽는 그 순간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생전에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세상의 기쁨을 좇아서 살았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죽어서는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지만 부자에게는 이름조차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천국에 가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죄 사함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에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실패, 재물의 많고 적음이 여러분의 내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공부 많이 한 사람이든 학교 문 앞에도 못 가 본 사람이든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대비하고 믿음으로 천국행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가? 1.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 2. 죽음 이후에 예비된 세계

### 3. 천국의 축복과 지옥의 형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불순종의 대가로 저주의 세력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근심, 걱정, 슬픔이 있으며 질병과 가난의 문제가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눈물, 근심, 걱정, 질병, 저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를 다 치유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기쁨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멸시받고, 때로는 순교하게 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굶주리고, 병들고, 멸시받아도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어떠한 곳입니까?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불 못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계 20:10)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모두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지옥은 본래 하나님께 반역한 마귀를 벌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되어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는 지옥 형벌 중의 하나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6:24). 그러나 그의 부탁은 거절당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세상에 남아 있는 자기 다섯 명의 형제들이 생각나서 나사로를 보내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증언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거절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만약에 죽은 나사가 살아서 세상에 살고 있는 동생들에게 이 상황을 말해주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성경내용을 믿고 전도할 때에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분들의 간증을 듣고서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원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신성종 목사님(현 신성종영성개발원 원장, 82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서울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십니다. 충현교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할만한 대형 교회이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장로시절 때부터 다녔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이었고 교수생활도 하였으며 총신신학교 대학원장도 역임하였습니다. 책도 70여권을 편찬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목사님은 장모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보게, 천국은 정말 있는 건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알고 있는 신학적, 성경적 지식으로 답을 했지만, 자신도 마음에 확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천국을 보여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8일 동안 환상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이 환상으로 본 지옥은 전체가 불덩어리처럼 활활 타고 있었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냄새가 지독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물이 없어서 견딜 수 없는 갈증을 느끼고, 사람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말기 암 환자 같았으며,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온갖 죄악을 즐기고 살았던 수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천국도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계시록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가 있었고 보좌 앞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었고, 엄청난 수의 천군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 두 진주문에는 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반열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1번 반열에는 주로 순교자들이 있었고 2번 반열에는 이 땅에서 전도를 많이 한 성도들이 있었으며, 3번 반열에는 주님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4번부터 10번 반열에는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람들로부터 교회에서 직분을 받

아 충성을 다한 분들이 있었고, 11번 반열에는 평생 믿기는 했으나 주님을 위해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 성도들이 있었으며, 12번 반열에는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십자가를 졌던 강도와 또 죽기 전에 믿은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난 후에 70이 넘는 나이에 인도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러 가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성종 목사님이 직접 저술한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이라는 책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시면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신성종 목사님과는 다르게 기독교를 그렇게도 싫어하고 증오하며 사고도 쳐서 교도소도 갖다오고 출소한 뒤로는 처갓집 식구들까지 모조리 죽이려던 사람이 극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박영문 장로이신데 원래는 강패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신 형님이 18년간 눈물의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1986년에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후 23년 동안 국내와 해외의 교회들을 다니며 2009년에 소천할 때까지 1700여 교회에서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새사람이 된 뒤로는 신학도 하고 나중에 장로도 되었고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고 합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인 줄만 알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죽음은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끝내고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결론핵심 :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삼시다.

**요약정리** /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가?

1.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
2. 죽음 이후에 예비된 세계
3. 천국의 축복과 지옥의 형벌